



목포시는 해변을 도보관광 코스로 활용하는 '해변맛길 30리 조성사업' 가운데 2구간인 2.1km의 남향구간을 개통했다. 남향 갈대숲길.

시 '해변맛길 30리' 중 남향~삼학도 2.1km 구간 환경생태길 개통 야생화·테마화단·120m 장미터널...짱뚱어·왜가리 등도 '손짓'

바다와 자연을 벗삼아 걷기 좋은 환경생태길이 열렸다.

목포시는 해변을 도보관광 코스로 활용하는 '해변맛길 30리 조성사업' (이하 해변맛길사업) 가운데 2구간인 2.1km의 남향구간을 개통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변맛길사업은 하당 평화광장에서 깃바위를 거쳐 남향과 삼학도를 지나 목포해양대학교까지 이어지는 총 11.7km로 5개 구간으로 나눠 진행되고 있다.

이번에 개통된 2구간은 남향~삼학도 구간의 환경생태길이다.

환경생태길은 해상 숲길 350m, 갈대숲길 1km, 습지연못, 갯벌 등에서 서식하는 짱뚱어 등 어류와

식물을 비롯해 왜가리, 노란부리백로 등 희귀 조류를 접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삼학도 봉황장레식장 앞 진입로나 남해수질관리사무소 후문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장기화된 코로나19에 지친 시민과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남향 유희부지 2만 9700㎡(9000여평) 중 1만9800㎡(6000여평)를 꽃양귀비와 안개꽃으로, 9900㎡(3000평)는 야생화 25종으로 꾸미고 장미꽃길도 조성했다.

시는 지난해 가을에도 불법투기 쓰레기와 잡초로 몸살을 앓던 남향 유희부지에 코스모스, 백일홍, 해바라기가 만개한 꽃밭을 조성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호응을 얻으면서 전남도로부터 적극행정 기관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시는 남향 외에도 삼학도에 원주리, 붓들레아, 가우라, 삼색조팝 등을 수놓은 1만3200㎡(4000평)의 테마화단과 120m의 장미터널, 난영공원 일원에 금계국 등을 심어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중삼학도에 조성된 1km의 무장애길에는 산수국, 가우라, 꽃양귀비, 무늬백문동 등 다양한 자태를 뽐내는 꽃들이 발걸음을 유혹하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해변맛길은 관광거점도시이자 예비문화도시인 목포의 매력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다"면서 "바다와 자연을 벗삼아 걸으면서 근대역사문화도 경험하고, 곳곳에서 맛있는 식사도 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영암 무화과 올해도 냉해 속출 재발 방지 정부 지원사업 시급

406ha 피해...전체의 85% 달해 군, 농림부에 291억 지원 건의

영암군의 특화작목인 무화과의 냉해피해가 심각해 정부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영암군에 따르면 무화과 재배면적 473ha의 85%에 달하는 406.2ha에서 냉해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1월5일부터 10일까지 4일 연속 영하 10도 이하의 저온현상이 지속되면서 동해가 발생하면서 무화과의 냉해피해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지난 8일 무화과 피해현장을 방문한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게 피해현황을 설명하고 정부지원을 요청했다.

전 군수는 "농가의 대부분이 노지재배를 하고 있어 겨울철 한파피해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영암군은 실질적 대책으로 터널형 부직포 지원사업, 비닐하우스 설치지원 사업 예산 274억 8000만원과 무화과 과원정비 16억5000만원 등의 지원을 요청했다.

또 무화과 관련 재해피해 지원조건 현실화 등 제도개선도 건의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국고지원이 확정되면 예비비 등을 긴급 투입해 피해농가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면서 "무화과 동해피해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우선 터널형 부직포 지원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완도군 '청산도 구들장 논' 보전·활용 협약

완도군이 사회협동조합인 '청산도 구들장'은 보전·활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청산도 구들장은 경사가 심한 지형에 돌로 구들을 놓는 방식으로 석축을 쌓고 위 논에서 아래 논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통해 농업용수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독특한 관개 시스템과 생물종 다양성 등의 가치를 인정받아 2013년 국가중요농업유산, 2014년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이번 협약은 세계중요농업유산 청산도 구들장에 대한 주민 협의체의 주도적인 보전·활용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체계적인 민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보전·활용을 위한 ▲구들장 논 복원·정비 연계 경관 농업 육성 ▲구들장 논 주민 역량 교육 및 관련 학습 프로그램 운영 ▲구들장 논 지역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 운영 등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협약이 끝난 후 신우철 군수 등 참석자들은 주민 협의체 회원들과 함께 전통 모내기 행사를 시연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청산도 구들장 논은 국제 학술회의의 자문과 한국관계배수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올해 세계관계배수유산(WHIS)으로 등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안 섬 전통 민가·돌담 문화자원 활용 나서

하의면 대리마을 등 14개 읍면 89곳...문화재 지정 추진 등

신안군이 섬마을 전통 민가와 돌담(사진) 등을 문화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신안군은 전통민가 조사연구 용역(목포대 김지민 교수) 결과 보고회를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조사 결과 신안 14개 읍면에 총 89곳의 전통·근대 민가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군은 설명했다.

하의면 대리마을은 300가구가 살던 신안의 가장 큰 마을로 현재까지도 많은 민가가 잘 보존돼 활용할 가치가 크다.

읍면마다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민가들에 대해서는 등록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고 활용 가치가 높은 민가들은 보수 정비를 통해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전통 민가들과 조화를 이루며 마을을 형성하는 옛 돌담 중 경관·문화적 가치가 높은 돌담은 등록문화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돌담 보전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도서지역 특유의 핵심 경관자원인 돌담의 보전과 축조기술의 전승, 항구적인 보전을 위해 매년 보수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그동안 섬은 낙후되고 발전에서 소외되었던 지역이지만, 그러한 이유로 육지에 비해 오랜 시간 전통 민가나 돌담, 마을이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오래되고 불편했던 우리의 환경과 자원들이 새로운 문화자원이 되고 미래의 자원이 될 것이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목포공고 총동문화, 무안 농촌 일손 돕기

목포공고 총동문화가 최근 코로나19로 일손 부족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다.

〈사진〉 김형성 회장을 비롯한 총동문화 전·현직 임원과 회원 30여명은 무안군 삼향면 용포리에서 마늘수확을 돕고, 마을회관을 방문해 주민들을 격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회장은 "목포공고인으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총동문화가 활발하게 활동해 모범을 보이고자 한다"며 "총동문화 회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농촌 일손 돕기 봉사에 나서자"고 주문했다.

한편 목포공고총동문화는 개교 94년 이라는



역사와 전통에 맞게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다양한 일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설 명절 쌀나누기 행사와 농촌 일손 돕기 사업, 공교인만이 할 수 있는 집수리봉사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 온정을 나누고 있다.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가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